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장인정신이 빛은 '식탁의 예술'

10 인스나인 '참새 반상기 세트'

굿디자인 인증·우수상 수상
세트당 최고 200만원에도 '인기'
내년엔 일본 등 해외시장 수출



10일 화순군 동면 운봉리 인스나인 공장에서 황인옥 대표가 '참새 반상기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생활도자기 전문업체 '인스나인(대표 황인옥)'이 화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참새 반상기 세트'는 그냥 흔한 도자기 아니다. 이 회사가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지역 문화가 박태후의 '참새 시리즈'를 그림으로 새겨 넣은 예술작품이다.

유명작가의 그림이 식탁 위의 그릇으로 옮겨 온 탓인지 인기도 높다. 세트당 200만원까지 판매하는 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상도 많이 받았다. 참새 반상기세트는 2003년 대한민국우수산업디자인전에서 굿디자인(GD) 인증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참새 다기세트'로 대한민국 디자인 진흥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한방에 날려 보낸 것이다. 이 제품 덕에 인스나인은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기업으로 족다.

인스나인은 지난 1997년 광주시 북구 청풍동의 49.5㎡(15평) 공방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설립 4년 만에 화순 농공단지에서 9천917.4㎡(3천평)규모로 공장을 늘리고, 매출도 해마다 10%씩 늘어 올해 20억 원 달성이 무난하다고 한다. 참새 반상기 세트의 히트에 힘입은 바 크다.

1인 기업이나 다름없었는데, 현재는 디자이너를 포함해 18명으로 회사 식구도 늘었다. 1인 10

역을 한다는 각오로 상품개발, 마케팅 등 담당분야가 따로 없이 뛰고 있다. 지난 2006년엔 연구소를 개설했을 정도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지식기반형 기업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모두 79종에 달하는 참새 시리즈 개발로 나타났다. 인스나인은 또 황영성·진원장씨 등 예술성을 인정받는 지역의 중견미술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상품화해 지금까지 100여종이 넘는 제품을 개발해오고 있다.

하지만, 작은 공방에서 출발해 문화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예술작품을 산업화해 대중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또 대학에서 순수예술만 전공했던 황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나서면서 상품개발은 물론 마케팅에, 판로개척까지 넘어야 할 산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황대표는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도 기존의 유



《참새 다기세트》

통망에 뛰어든 만한 막대한 자금도 없었지만,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이 과정에서 참새 반상기 세트가 최고의 '영업사원'이 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황대표는 내년부터는 참새 반상기 세트를 일본 등 해외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참새 반상기 세트는 광주비엔날레 1층 갤러리 카페 'BIN' 매장과 화순 공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기업 연말까지 9천명 채용

광주노동청 5인 이상 사업체 3,293곳 고용조사

광주전남지역 사업체들이 연말까지 모두 9천여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3천293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5일간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 한 결과, 지역 기업체들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광주 4천888명, 전남 4천246명으로 모두 9천134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광주지역 부족인원은 4천814명(4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2.3%(1천173명) 증가했고, 전남지

역 부족인원은 3천324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 증가했다.

사업체들은 부족인력 해소 방안으로 고용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54.4%), 구인방법 및 채용경로 변경(29.6%), 임금인상(23.8%)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또 향후 채용계획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과 맞물려 지역 고용시장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의 경우 채용계획인원은 사

광주·전남 사업체 고용현황 (단위:명,%)

현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인원
광주 222,723	4,814	2.1	4,888
전남 208,973	3,324	1.6	4,246

(자료:광주지방노동청)

업·개인·공공서비스업(1천528명), 제조업(1천286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천51명)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제조업(1천788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천197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50명)순으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아파트 시가총액

35조 4,385억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1천700조 원을 돌파했다. 서울과 경기도 시가총액이 전국 총 시가총액의 71.4%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광주·전남은 2%인 35조4천385억에 불과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캐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전국 아파트 637만7천827가구의 시가총액은 총 1천704조54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천600조원대를 넘어선 뒤 금융위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3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조8천54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531조9천941억 원), 인천(94조1천842억 원), 부산(80조7천831억 원), 대구(60조7천560억 원) 등의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광주의 경우 26조188억 원에 그쳐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시가총액보다 낮았다. 전남도(9조4천197억 원)의 경우 제주도(2조2천779억 원), 강원도(14조8천981억 원), 전라북도(19조3천603억 원)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전국 아파트 가구수의 46.9%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시가총액은 총 1천217조8천482억 원으로 전국 총 시가총액의 71.47%에 달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총액은 111조8천553억 원으로, 광주는 물론 인천과 부산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84조3천222억 원), 서초구(68조4천231억 원)가 뒤를 이으며 강남권 3구가 시가총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복날엔 복분자주..."

보해 '복-복 마케팅'

보해양조차 초복을 하루 앞둔 13일 '복날엔 복분자주를 마시자'는 '복(伏)-복(福) 마케팅'에 나섰다.

보해양조차는 이날 "전국 유명 보양식 업소 770곳에서 복날 삼계탕·오리탕 등 보양식과 함께 복분자주를 마시는 소비자들에게 복분자주 미니어처(80ml) 10만 병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주수원 국민임대

6,8단지 1,942호

·접수 7월 22일(수)~23일(목)

·장소: 주공 지역본부1층

대한주택공사

문의 062-380-0400-1,0408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잘 들립니다 3. 잘 못 들립니다

국제보청기

www.kittr.com

본점 (062) 227-9940
충무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해동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미드레

지금, 당신 옆의 그 사람과 함께하세요.

로이아름답게

2009. 7. 25(화) ~ 26(수)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보 4시 7차 / 일 3시 8차)

공연문의 1588-0766 (매주)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문화재단, 대전광역시문화재단, 대전광역시문화재단